

배치로서의 장소 개념화와 장소감의 의미 전환*

박명화**

The Conceptualization of Place as Assemblag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Meaning of Sense of Place*

Myung Hwa Park**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장소 개념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치로서의 장소를 개념화하여 논의하였다. 배치로서의 장소는 이질적 개체들이 연결되어 모종의 의미가 생성되며, 변이에 열려있는 일시적 안정성을 지닌다. 이는 정적인 본질주의적 장소 개념을 넘어서, 장소를 역동성과 복잡성으로 개방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장소와 공간 간의 이분법적 관계를 해체하며, 장소와 공간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역동적 관계로 전환된다. 또한 장소감의 의미를 전환하기 위하여 장소-되기 개념에 기반하여 새롭게 논의하였다. 장소감은 장소-되기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감응에 기반하여 장소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뿌리내림의 방향성과는 달리, 장소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의미와 감각을 가지면서도 변이를 함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소와 장소감의 개념 전환은 지리교육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리교육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배치, 장소, 장소감, 감응, 장소-되기

Abstract: In this study,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concept of place were pointed out, and place as assemblage was conceptualized. Place as assemblage is a temporal stability in which heterogeneous entities are connected to create meaning and are open to variation. This goes beyond static essentialist conceptions of place and opens up place to dynamism and complexity. This perspective deconstructs the binary relationship between place and space, which is transformed into a dynamic relationship of territorialization and deterritorializ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change the meaning of sense of place, a new discuss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concept of becoming-place. A sense of place can be seen as a way of understanding a place based on the affects that are formed during the process of becoming-place. Unlike the directionality of rootedness, it implies variation while having a consistent meaning and sense of place. This shift in the conceptualization of place and sense of place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geography education, and implications for geography education were derived.

Key words: assemblage, place, sense of place, affect, becoming-place

I. 서론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며 장소가 소멸되리라는 예측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은 장소와 결부되어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정주에 기반한 전통적 장소는 사라지고 있지만, 일상적 사건은 장소와 얽혀서 발생하고

* 본 논문은 박명화(2023)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충주성남초등학교 교사(Teacher, Chungju sungham Elementary School), saint0182@hanmail.net

있으며 우리는 장소에 대한 모종의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의 장소를 장소의 부재나 소멸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소 자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장소는 고정성, 비이동성, 불변성을 나타내며 인간 존재의 토대로서 정지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장소를 인간이 뿌리내려야 하는 대지로 바라본 것으로, 그 결과 장소는 인간 주체와 분리된 객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실재하는 삶의 장소는 끊임없이 변이하고 있다. 이는 도로가 확장되고 건물의 형태가 변화하거나, 혹은 숲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물리적 경관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원은 시민들의 쉼터일 뿐만 아니라 출퇴근 경로로, 축제 현장으로, 또 추모의 장소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이 다양한 사람들, 사물들, 사회적 사건 등과 결합하여 ‘다른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장소는 항상 변이하는 흐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장소¹⁾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도 않고 흐름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다. 이동성과 고정성, 흐름과 정착이라는 상반된 특성들은 서로의 특성들을 전제하고 있다(Massey 저, 박경환 외 역, 2016, 188). 장소에는 늘 동일화하려는 힘과 동시에 그것을 깨뜨리는 차이의 힘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장소의 의미는 특정한 것으로 지각되는 동시에 하나의 의미로 고착될 수 없다. 이처럼 장소의 의미가 상반된 특성들 속에서 형성되고 변이한다면, 우리가 장소를 만나고 이해하는 방식 역시 이성적 사유 기반의 판단에 한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재하는 장소의 생성을 동일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복잡성으로 사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Deleuze의 배치 개념은 장소의 역동성을 개념화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 배치의 사유는 세계가 이질적 존재들의 만남과 얽힘으로 끊임없이 변이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즉 배치 개념은 유기적 전체로서 대상의 통일성을 거부하며, 대상의 특성을 필연적으로 정의하는 본질 역시 해체한다(Nail, 2017, 22). 따라서 배치로 장소를 사유하는 것은 장소의 고정성을 변이로, 영속성을 임시적인 것으로 개방하며 장소의 다채로운 특이성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그러나 장소나 지역이 이질적 요소들의 구성이라는 관점은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배치의 사

유 이전에도 지리학에서 장소를 이산적인 것들의 결합으로 개념화하려는 노력은 존재해왔다(Cresswell, 2016, 241). 예컨대 Hartshorne은 지역의 본질이란 개별적인 요소들로 분리할 수 없는 복합, 즉 요소-복합(element-complex)들의 중첩이 지역적 차별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였다(권정화, 1997, 22). 즉 구성 요소들이 결합되어 복합을 형성하는 양상을 인식하는 것이 곧 지역에 대한 이해이다. 비록 Hartshorne의 논의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을 특수성과 전체성의 관계 속에서 사유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지리학에서 지역을 배치로 사유하는 출발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Casey는 장소의 속성은 이산적인 것들을 모으는 것(gathering)으로 보고, 장소를 생물 및 비생물, 경험과 역사, 언어, 사유 등이 모인 곳으로 보았다. 이때 장소는 단순히 이산적인 요소들이 축적되는 것을 넘어, 특정한 구성의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Casey, 1996, 24-25). Massey는 장소가 여러 요소들의 모음이라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 장소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관계에 의한 배열로부터 생산된다고 주장하며, 장소를 연결을 통한 관계적 실체로 보았다(Massey 저, 박경환 외 역, 2016, 127). Massey는 이러한 장소의 특성을 배열(configuration)이라 명명하며 배치로서의 장소에 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Deleuze의 배치 개념에 기반하여 ‘배치로서의 장소(place as assemblage)’에 관한 논의 역시 진행 중이다. 배치로서의 장소에 관한 연구는 Dovey(2009)의 연구를 본격적인 시작으로 건축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주로 배치 개념 자체의 철학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연구가 많으며(Anderson and McFarlane, 2011; Dewsbury, 2011; Anderson *et al.*, 2012; Muminovic, 2015), 또 한편에서는 구체적인 장소 현상을 설명하는 프레임으로 배치 이론을 사용하기도 한다(McFarlane, 2011; Anderson, 2012; Woods *et al.*, 2021). 이 외에도 배치의 관점으로 인구지리학에 접근한 연구(Duffy and Stojanovic, 2018), 쿼 주체와 장소의 관계를 배치의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Nash and Gorman-Murray, 2017) 등 다양한 방향에서 배치와 지리학을 접목시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배치 이론과 실재적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연구, 다시 말해 배치로서 장소 자체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소를 새롭게 사유하기 위한 기반으로 배치로서의 장소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배치와 수행성 및 감응, 되기의 개념을 연결하여 장소와 장소감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이 지리교육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장소 학습을 명료한 객관적 지식 너머로 확장하여 장소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지각하도록 할 때, 지리교육이 삶과 괴리되지 않으며 우리와 장소의 관계를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너머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I. 장소의 재개념화: 배치로서의 장소

1. 배치로서 장소의 의미

모든 개체는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언제나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우리가 집을 나서는 순간 도로, 건물, 타인들과 같은 물질적 요소들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교통 체계, 사회적 관습, 사용하는 언어 등의 비물질적 요소들과도 연결되며 일상이 펼쳐진다. 이질적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며 모종의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연결은 단순한 상호작용의 관계성을 넘어서는 특정 의미의 창발(emergency, emergent property)³⁾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이질적인 구성 요소들이 조우하여 모종의 의미가 발생하며, 다시금 새로운 얽힘의 양상으로 변이하는 운동 양상을 배치(agencement/ assemblage)라 한다.³⁾

Deleuze는 배치란 ‘많은 이질적인 항들을 허용하고, 상이한 본성들, 즉 시대·성(性)·계(界)들을 가로질러 그 항들 간의 연결 및 관계들을 수립하는 하나의 다양체(multiplicite/multiplicity)⁴⁾’라고 보았다(Deleuze and Parnet 저, 허희정 외 역, 2005, 131). 즉 배치는 이질적 요소들이 연결되어 모종의 관계를 수립하며, 이때 각 요소들은 그 특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통일성으로 포섭되지 않는 일관성을 나타낸다. 통일성이 이질적 요소들을 동일한 기능과 목적하에 종속시켜 유기적인 총체성을 유지하는 것인 반면, 배치는 요소들의 이질성을 잃지 않은 채 묶인 전체가 함께 작동하며 나름의 일관성을 형성한다. 배치에 유일한 통일성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작동(co-functioning)’에서 오는 것이다(Deleuze and Parnet 저, 허희정 외 역,

2005, 131). 요컨대 Deleuze에게 배치란 이질적 부분들이 잠정적이고 개방적인 전체로 공동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치가 잠정적이고 개방적인 까닭은 배치가 외부성(exteriority)을 가지기 때문이다. 배치가 외부성을 갖는다는 것은 배치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그 배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상호 작용이 다른 배치에 접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DeLanda 저, 김병범 역, 2019, 25-26). 즉 하나의 배치는 동일한 형태와 의미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와 접속하여 새로운 배치를 형성하며 변이한다. 따라서 배치의 사유는 개체들의 내부적 본질로 침잠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접속하는 외부와의 만남으로 발생하는 효과에 의해 개체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배치의 특성은 차이의 사유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며 극단적 상대주의로 귀결된다는 비판에 대항하여, 차이생성의 관점은 세계에 대한 포착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개체들은 의미의 고정성을 내던졌을 뿐, 의미 자체를 상실한 것이 아니다. 외부로 인하여 사유는 미지의 것을 향해 개방되며 미규정성으로 가득한 잠재성의 지대를 모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배치의 특성은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의 문제를 통일성과 본질의 논리에서 구해내는 동시에 무한한 차이의 흐름인 카오스에서도 구해내며 생성의 존재론으로 개방한다.

우리가 만나는 세계를 고정불변의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 배치로 볼 수 있다면, 장소의 의미 역시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장소는 정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인간주의 지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질은 ‘거주(Wohnen)’에 있다는 명제를 추구하고, 객관적·추상적 공간이 아닌 ‘장소’를 강조하였다. 이때 장소는 인간이 뿌리내리며 진정한 의미를 생성하는 중심이 된다. 즉 무차별적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여 정지할 때 공간은 장소가 되고, 장소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지니게 된다(Tuan 저, 구동화, 심승희 역, 1995). 따라서 장소는 고정성, 비이동성, 불변성, 영속성을 지니며, 장소의 변이와 생성은 정주의 논리에 갇히게 된다. 이처럼 인간을 대지에 정주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정지와 고정성의 렌즈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관점이 바로 ‘정주의 형이상학(sedentary metaphysics)’

(Malkki, 1992)이다. 정주의 형이상학은 장소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배제 및 소외의 담론의 생산으로 연결되었다. 즉 장소로 향하는 과정은 뿌리내림인 반면, 공간으로 향하는 과정은 뿌리뽑힘을 의미한다. 이는 장소와 공간을 대립 구도로 상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소를 정적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역동적 삶의 세계를 고정하여 단순성으로 환원시켰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장소는 어떠한가? 오늘날의 지리학에서 장소는 경계가 있고 안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동요하는 외부에 의해 항상-이미 구성되는 진행중임(ongoingness)이다(Saldanha, 2017, 167). 즉 장소는 이미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위치들이기보다 이전에는 서로 관련이 없던 것들, 그래서 함께 통합되어 새로운 구성하게 되는 것들이 만나고 분리되는 지점이다(Massey 저, 박경환 외 역, 2016, 140). 일상에서 장소는 특정 의미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이한다. 가령 동일한 물리적 교실일지라도 교사와 어린이들, 책상의 물리적 배치, 또 교과서의 성격과 학급 문화, 질서 체계 등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나타내며 변이한다.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소를 불안정성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장소가 지니는 잠정적 안정성에 기인한다. 흐름의 공간을 위한 변화와 이동성은 일시적으로 안정화된 것들이 구성되어야만 그 추동력을 얻게 된다. 경합을 벌이는 것들 사이에는 타협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Massey, 저, 박경환 외 역, 2016, 188). 이와 같은 장소의 움직임과

이동, 변이와 안정성이라는 이질성이 만들어 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이 바로 Deleuze의 배치 이론이다. 실제 삶에 존재하는 장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배치로서의 장소'로의 개념 전환을 통해 장소의 역동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소가 변이한다는 것은 장소가 전체로서의 총체성이거나 유기적 통일성을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특정 거리는 '거리'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이질적 요소들, 즉 건물, 상점, 도로, 방문자, 상인, 그리고 상권, 경제 흐름, 소비 담론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산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배치 또는 하나의 장소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들 사이의 연결이기에(Dovey, 2009, 16), 특정 거리를 이루는 부분들의 배치 양상에 따라 거리의 특이성은 변화한다. 이렇게 볼 때 장소는 완결성을 지니며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물질적·비물질적 요소들이 연결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배치의 과정이자 산물로 볼 수 있다. 즉 장소는 안정화의 결과인 동시에 안정화의 상태를 동요시켜 불안정하고 예상치 못한 변이의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다. 배치로서의 장소란 이처럼 단순히 이질적 요소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을 넘어, 이것이 서로 연결되고 해체되며 또다시 새로운 양상으로 결합하는 역동적 운동의 산물이자 그러한 변이의 흐름 자체를 의미한다.

장소 개념을 이처럼 배치로서의 장소로 전환한다면, 장소의 역동성을 포착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배치는 본질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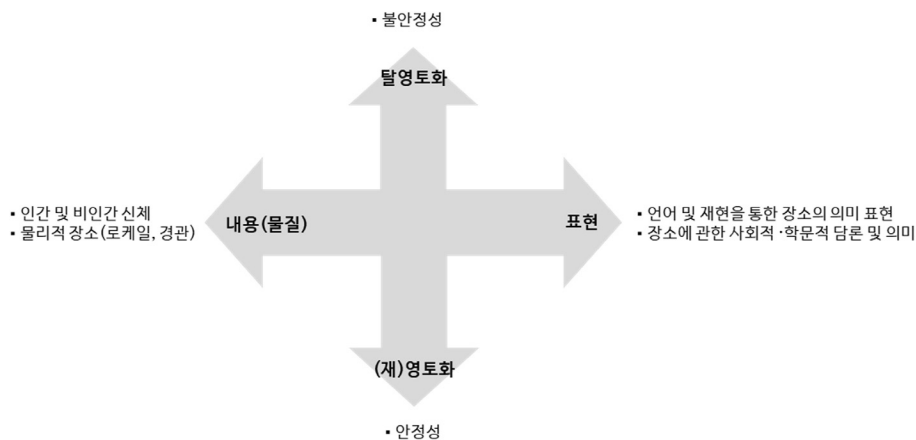


그림 1. 배치로서의 장소의 구성 요소

인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배치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양상에 따라 배치된 개체들의 역량이 달라진다. 즉 개체들의 역량은 다른 개체들과의 결합 상태인 배치를 통해 포착할 수 있다.

Deleuze는 이와 같은 배치의 양상을 두 가지 축의 결합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장소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배치의 수평축은 내용과 표현의 선분으로, 그리고 수직축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운동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수평축에서 '내용'은 인간 및 비인간 신체 등 배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물질적 측면을 나타내며, '표현'은 비신체적 측면, 즉 명제, 언어 및 연표 등을 나타낸다. 우선 장소는 인간 및 비인간 신체, 물리적 경관 등의 물질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앞의 예에서 언급한 특정 거리는 소비와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상점들,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작은 골목들, 조형물 등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로컬(locale)과 방문자들의 신체 등의 '내용'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배치로서의 장소에 물질적 요소만이 함께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장소는 물질뿐만 아니라 표현적 요소들이 함께 내부 작용(intra-action)⁵⁾하여 생성되는 배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네(neighbourhood)는 주택, 상점, 공원 및 편의 시설 등의 물질적 배치이며, 또한 건물 양식, 형태, 명칭의 담론적 배치이기도 하다. 그것은 상호 작용과 사건의 특정 강도를 구현한다(Dovey, 2009, 24). 이산적인 물질적 요소들이 연결되며 물질적 집합체를 이루더라도 그것이 '장소'는 아니다. 장소는 물질 요소들이 모이는 것을 넘어 연결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 공간을 규정하는 사회적·학문적 담론, 언어적 표현, 법체계 등과 같은 '표현적' 요소들이 함께 얹히며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배치로서의 장소는 물질

적 요소와 표현적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생성되며 이들 구성요소는 장소 배치의 수평축을 구성한다.

장소의 또 다른 축은 장소를 응집하는 영토화하는 힘과 그것을 분리하는 탈영토화하는 힘이다(Cresswell, 2015, 53-54). 내적인 균질성의 정도나 경계의 선명도를 증가시키므로써 배치의 정체성을 안정화하는 과정이 영토화 과정이라면, 이러한 안정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탈영토화의 과정이다(DeLanda 저, 김영범 역, 2019, 28). 우선 장소 배치는 물질적 요소들과 표현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생성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영토적이다(Deleuze and Guattari 저, 김재인 역, 2001, 960). 이 영토화의 운동으로 장소에는 특정 경계가 새겨진다. 이러한 경계는 국경선이나 행정구역에 따른 경계와 같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뚜렷한 실체가 아니라, 변이의 잠재성을 함축하고 있는 잠재적이고 일시적인 경계를 의미한다. 경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어떠한 영토적 경향도 갑자기 생성(becoming)의 경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Saldanha, 2017, 118). 이처럼 장소의 경계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내적 이질성을 증가시키는 모든 과정이 탈영토화이다(DeLanda 저, 김영범 역, 2019, 30). 장소는 이질적이고 자율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까닭으로 늘 탈주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소는 안정성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변이의 지대로 진입한다. 따라서 영토화로 새겨지는 장소의 경계는 필연적으로 위반되며 지워진다.

이처럼 장소를 배치로 사유하는 것은 장소 개념에 내재되어 있던 본질주의를 해체하고 생성의 관점에서 장소를 새롭게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장소 개념의 변화는 표 1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장소는 정적이고 안정성을 가지며 고정되어 있다. 배치로서의 장소 역시 안정성을 가지지만 그것은 불안정성에 개방된 임시적 안정성이다. 그러하기에 장소는 역동적

표 1. 본질주의적 장소와 배치로서의 장소

특성	본질주의적 장소	배치로서의 장소
장소의 특성	정적임, 안정성, 영속성, 고정, 동질성, 폐쇄성	역동적, 불안정성, 변이, 움직임, 차이, 개방성
행위 주체	인간	인간 및 비인간, 물질적 환경, 사회적 담론 등
장소가 발생하는 기제	거주(dwelling), 인간 경험	수행성(performativity), 연결(connection)
구성요소 간의 관계	유기적(organic), 통일성(unity)	일관성(consistency), 응집성(coherence)
장소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	의미(meaning), 정서(emotion)	감응(affect), 특이성(singularity), 강도(intensity)

으로 변이하며 차이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장이다. 장소의 행위 주체는 기존의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물질적 환경, 사회적 담론 등이 모두 장소에서 행위력을 가진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간 주체의 전능함은 해체되고 인간-장소의 주체-객체 관계 역시 전복되며,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았던 개체들의 다양성은 되살아난다. 또한 장소가 발생하는 기제 역시 새롭게 전환된다. 배치로서의 장소가 생성된다는 것은 정적인 거주가 아닌 역동성을 수반한다. 개체들을 묶는 특정한 연결들이 그 장소를 독특한 시공간적 응결로 만들며(Saldanha, 2017, 167), 장소는 창발한다. 한편 본질주의적 관점에서는 장소 경험을 통해 의미와 정서가 생산된다.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러한 장소의 의미에 유기적으로 부합하며 통일성을 가진다. 배치로서의 장소에서는 배치를 통해 감응과 특이성 및 강도가 발생한다. 이들은 특개성(heccécité/thisness)⁶을 지니기 때문에 단일한 의미로 자명하게 표현될 수는 없지만, 서로 응집성을 지니며 모종의 일관성을 방출한다.

이처럼 장소에 근거와 본질의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했던 본질주의적 관점과는 달리, 배치로서 장소를 바라보는 관점은 근거와 본질로 제시되는 척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견고한 장소의 벽을 해체하고 그동안 간과되어온 미시적인 차이들의 생성 및 이를 통한 장소의 역동적 변이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로서의 장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장소를 배치로 보는 관점은 구성요소 간의 단순한 상호 작용(interaction)을 넘어, 내부 작용(intra-action)을 통해 창안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상호작용의 관점이 선제하는 개체를 상정하고 그것이 연결되는 양상을 다룬다면, 내부 작용의 초점은 상호 얽힘을 통해 창발하는 개체들 ‘사야’의 잠재력, 즉 창안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의 배치는 상이한 의도와 활동의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한 더 큰 개방성을 의미한다(McFarlane, 2011, 654). 즉 물질적·비물질적 요소들의 우발적인 조우와 얽힘을 통한 장소의 생성은 다시 새로운 우연성과 배치의 가능성으로 개방된다.

둘째, 장소를 배치로 사유하는 것은 장소를 특개성으로 포착함으로써, 다양한 특이성으로 장소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는 이전에 관계가 없던 것들이 함께 모여 일종의 유일무이함(uniqueness), 즉 특개성(heccécité)

이 생성된다는 의미에서 ‘사건’이다(Massey 저, 박경환 외 역, 2016, 268-269). 장소의 수많은 특이성들은 재현의 차원에서는 쉽게 지각될 수 없지만, 이질적인 것들이 응집되어 만들어내는 감응(affect)으로 감각된다. 이와 같은 장소의 특이성은 익숙한 경관과 의미에서 벗어나 장소를 새롭게 사유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셋째, 배치의 관점으로 장소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개체의 힘과 역량을 긍정함으로써, 장소에 관한 인식론을 존재론으로 전환하고 이는 배치의 변환이라는 실천의 문제로 연결된다. 배치로서의 장소는 인간과 장소,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횡단적 관계를 통한 새로운 주체성을 구성한다. 따라서 장소는 인간이 본질을 탐구해야 할 대상에서 행위력(agency)을 가진 존재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인간의 역량은 통념적인 장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성적 인식 능력에서 벗어나 다른 개체들과 얽혀 새롭게 생성하는 역량으로 전환되며, 이는 기존의 장소 배치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탈주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실천 역량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장소를 배치로 이해하는 관점은 공간에서 진리 혹은 본질을 찾고자 한 전통적 사유에 반하여, 변이의 흐름을 그려내는 장소를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장소는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동일한 의미로 뒤덮을 수 있는 규정가능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배치’이자 ‘사건’이다. 배치의 운동 양상을 통해 장소의 수많은 특이성들과 조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세계 내 존재(being-in-the-world)로서의 인간 역시 세계와 얽혀 생성하는 존재(becoming-with-the-world)⁷로 전환된다. 이처럼 장소를 배치로 사유하는 관점은 장소가 본질이라는 종결점에 고착되는 것을 막고 장소를 역동적 생성의 과정으로 개방하여, 장소에 대한 이해는 물론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

2. 장소와 공간의 관계 재설정: 영토화와 탈영토화

장소가 정적인 고정성에서 벗어나 역동적 변이로 개방된다면 기존의 장소와 공간의 대립 구도 역시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장소와 공간의 관계는 구체성과 추상성, 정지와 이동, 의미와 무의미라는 상반된 특성을 전제로 이항대립 구도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장소가 더 이상 고정성에 포획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이

분법적 구분의 해제 이후 장소와 공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장소와 공간의 대립이 주로 뿌리내림과 뿌리뽑힘이라는 상반된 운동성에서 비롯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장소의 운동성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즉 배치로서의 장소에서 수직축을 이루고 있는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운동을 검토함으로써 장소와 공간의 관계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Fox와 Alldred(2021)는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운동을 역량의 관점에서 특수화와 일반화의 과정과 연결하여 논의한 바 있다. 영토화는 프랑스어 *terroir*의 뜻이 포도나무나 벌집의 물리적 환경이 그것으로부터 생산되는 와인이나 꿀의 품질을 특수화한다는 의미인 점을 고려할 때, 특수화(specification)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배치 내의 감응은 신체 또는 다른 관계의 역량을 특수화한다. 반면 탈영토화는 특정 감응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며, 배치에서 결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따라서 탈영토화는 역량의 일반화를 나타낸다(Fox and Alldred, 2021, 4). 즉 영토화는 모종의 배치를 통해 특정 역량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특수화의 과정인 반면, 탈영토화는 배치에서 벗어나 다른 역량으로 변이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과정이다. 이때 일반화란 개체들의 특이성을 보편적 질서로 환원시키는 의미에서의 일반화가 아니라, 어떠한 특수한 역량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의 지대라는 의미에서 일반화를 뜻한다. 특수화와 일반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운동은 신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가능성과 한계가 끊임없이 동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hrift, 2004, 61). 중요한 것은 영토화와 탈영토화가 결코 대립된 운동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탈영토화를 이끄는 탈주선은 영토화된 선분들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으며 기존의 배치를 변화의 가능성으로 이끈다.

이렇게 볼 때 장소와 공간의 관계는 영토화와 탈영토화 운동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소가 발생하는 과정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는 배치를 통해 모종의 의미가 생성된다는 측면에서 영토화의 과정이다. 또 신체들은 배치를 통해 특정 역량을 가지게 되는 까닭으로 특수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한편 장소는 하나의 의미에 영속적으로 고착되지 않는다. 장소는 기존의 배치에서 벗어나는 탈영토화의 운동을 통해 다른 의미로 변이한다. 이

렇듯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나 다른 배치로의 이행 양상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발산하는 잠재성을 갖는 상태를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즉 공간은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팅 반’ 것이 아니라, 변이의 가능성에 열린 잠재적 상태이다. 따라서 공간은 의미가 존재하지 않거나 장소가 상실된 상태를 나타내지 않으며, 오히려 의미의 규정 가능성에 열린 미구정성을 갖는다.

장소에서 공간으로 변이하는 과정은 귀속된 의미에서 벗어나는다는 측면에서 탈영토화의 과정이고, 구체적 역량을 갖지는 않지만 다른 역량들의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과정이다. 이는 공간에서 장소로 향하는 선형적 방향성을 상정하였던 본질주의 관점과는 달리, 영토화와 탈영토화를 통한 장소와 공간의 역동적 변이를 긍정한다. 장소와 공간의 관계는 기존의 이항대립성을 넘어, 변이의 흐름 위에서 서로 전환되고 전복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상태로 변화한다.

예컨대 매일 반복되는 통근길에서 이용하는 기차는 결코 같은 장소로 지각되지 않는다. 기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기차의 연착 여부, 날씨 등 다양한 요소들이 연결되며 어제의 기차와 오늘의 기차는 상이한 의미로 변이한다. Bissell(2018)은 통근에 관한 연구에서 10대 소년들이 객차에 탑승하여 갑작스레 객차가 다른 ‘장소’가 된 사건을 보여주었다. 사례에서는 한 무리의 소년들이 기차에 탑승하여 승객들을 조롱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한 결과, 소년들의 조롱과 욕설, 객차를 감싸는 침묵, 참지 못한 사람들의 폭발 등이 연결되며 객차 안에서의 역량과 제약의 변이를 만들었다. 이전의 객차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평온한 장소였다면, 이들의 등장으로 승객들은 객차를 전혀 다른 장소로 느끼며 역량이 변이하게 된다. 이때 소년들이 탑승한 객차는 이전의 장소에서 탈영토화하여 새로운 장소로 재영토화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장소 배치에서 새로운 배치로 이행할 때 탈영토화는 필수적이며, 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중간지대에 있는 공간은 다른 배치로의 잠재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장소와 공간의 관계는 더 이상 이항대립적 개념도, 어느 하나가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도 아니다. 즉 배치의 관점에서 장소와 공간의 기존 관계는 장소의 역동적 운동과

정에서 끊임없는 치환되고 변이하는 관계로 전환된다. 이는 특히 무차별성으로 규정되었던 공간을 무규정성으로 전환하여 장소와 공간의 변이와 특이성에 주목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3. 장소의 수행성과 잠재성을 통한 장소 배치의 형성과 변이

배치로서의 장소는 이질적 요소들이 서로 조우하여 특정 의미를 생성하고, 다시 그것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변이하고 있다. 즉 장소 개념에는 장소가 차이의 의미들로 변이한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한 배치의 형성과 변이를 만들어내는가? 이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수행성과 배치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수행성 개념은 주로 Butler의 이론에 기반하여 발전하거나 변형되어 왔다(Kinkaid and Nelson, 2020, 92). Butler의 수행성 개념은 단일하거나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복과 인용을 수행하는 실천으로, 즉 담론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칭하는 효과들을 산출하게 하는 실천을 의미한다(Butler 저, 김윤상 역, 2003, 23). 이러한 맥락에서 젠더는 본유적이거나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담론의 반복과 인용을 통해 수행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주체는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반복적 실천으로 생산된다. 담론의 인용 과정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까닭으로 고정되고 영속적인 주체에 대한 환상은 해체되고, 주체는 수행을 통해 담론을 위반하고 전복하는 행위주체성(agency)을 지닌 존재로 전환된다. 이처럼 Butler의 수행성 이론은 기존의 재현적 주체를 행위하는 존재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주로 담론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Smitham, 2011, 58). 즉 Butler는 물질성으로의 귀환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담론으로부터 생산된다고 가정함으로써 물질의 역동성을 인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Barad, 2007, 61-64).

지리학에서 수행성에 관련된 논의는 주로 비재현 이론에 기반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비재현 이론(non-representational theory)은 기존의 지리학 이론이 개별 주체의 행위를 언어·상징·담론으로 번역한 점을 비판하며, 의식적 차원 아래의 행위들이 삶의 다양한 맥락을 만들

어내는 양상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한다(Nelson, 1999; Dewsbury, 2000; Thrift, 2004; Simpson, 2020). 재현의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변이하는 세계를 구조적인 상징적 질서 내부로 가두었다면, 비재현 이론은 실천의 우발성에 주목하여 세계를 생성적 과정으로 개방한다. 비재현 이론은 지리학의 재현적 흐름에 비판을 제기하며 연구의 초점을 언어, 상징, 구조에서 행위, 실천, 수행성 등으로 전환하였다.

수행성은 행위자의 개별적 행위를 지칭하지 않으며,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가 길을 걷는 것, 여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들, 거세게 일렁이는 파도 등도 모두 수행성을 가진다. 따라서 수행성은 이성적 사유 능력을 독점한 인간 주체에 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비인간 신체 및 담론 역시 수행성을 지닌다. 이러한 까닭으로 수행성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행위의 의도나 배경에서 행위의 힘이나 효과로, 또 인간 주체에서 인간을 포함한 인간 너머의 행위자로 전환된다. 이는 또한 기존의 이성적 주체가 의식적·의도적으로 행동을 수행하거나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행위에 의해 비로소 주체가 구성된다는 관점으로서의 전환이기도 하다.

이때 수행성이 만들어내는 효과란 바로 ‘연결’을 의미한다. 즉 수행성은 세계와의 연결에 관한 것이다(Dewsbury, 2000, 466). 예컨대 바다에서 수영하는 행위는 단순히 인간 신체를 움직이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수영의 수행성이 다른 인간 및 비인간 신체의 수행성, 물결과 파도의 수행성, 날씨의 수행성 등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바다에 대한 특정 감각이 형성된다. 사회 구조와 의미, 감각, 정체성, 습관, 감성 역시 이미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수행성을 통해 형성된다(Simpson, 2020, 53). 즉 수행성은 세계와의 연결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수행성을 통해 장소 및 세계와 배치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행성으로 말미암아 장소 역시 생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소는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이한 배치로 변이하며, 이러한 배치를 만드는 것은 연결되는 개체들의 수행성이다. 장소는 수행성을 통해 창발하는 지속적이고 우발적인 프로세스인 것이다(McCormack, 2009, 136). 가령 사람들이 잘 찾지 않던 특정 전통시장이 ‘관광지’로 떠오른 현상은 비단 시장의 경관이 변화한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시장의

물리적 경관과 상인들, 상품, 거리, 사람들, SNS를 비롯한 방송 매체들, 홍보 등의 이질적 요소들의 수행성이 새로운 장소 배치를 형성한 결과이다.

한편 수행성이 만들어내는 배치로서의 장소는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로 변이하고 있다. 일상의 반복적 수행조차도 동일한 장소를 생산하지 않으며, 장소의 차이를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낸다. Deleuze의 존재론은 현실적 차원에서 지각 가능한 차이의 양상을 넘어, 그 아래 잠재성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생성에 주목한다. 수행성이 차이의 장소를 생성할 수 있는 까닭은, 재현의 층위 아래에 존재하는 잠재성의 층위 때문이다. 장소의 차이와 변이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현실적 차원 아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감각 가능한 장소의 차이는 그러한 차이화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한 개체가 배치의 양상에 따라 새로운 역량을 지니게 된 것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역량이 외부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잠재적 층위의 이념⁸⁾에 존재하고 있던 특이성들이 배치의 결과로 현실화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소가 상이한 배치에 따라서 다른 장소로 변이하는 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장소에 배치되는 개체들에 내재한 이념의 특이성들과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교실이라는 장소의 잠재성은 그것이 개체들과 어떠한 양상으로 배치되는지에 따라 교실을 전혀 다른 장소로 만들어낸다. 교실과 어린이, 교사, 교과서, 물리적 환경 및 담론적 요소 등과 같이 장소 배치에 얽히는 요소들은 재현적 층위의 아래 이념의 세계를 함축하고 있다. 그 이념에 존재하는 수많은 특이성들이 각각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교실은 상호 얽힘을 통한 배움의 장소로, 일방적 지식 전달의 장소로, 소외와 배제의 장소로 변이한다.

잠재적 장소는 현실성의 장소와 함께 실재적 장소의 일부분을 이미 구성하고 있으며 배치를 통해 끊임없이 생성하는 장소의 변이 가능성을 주름으로 접어 그것을 현실성으로 펼쳐내고 있다.⁹⁾ 이때 잠재성은 현실화될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방향, 즉 현실적인 것 역시 잠재성에 기입된다. 가령 도시를 거닐 때, 그 도시의 사람들, 경관, 담론 등 여러 개체들과 배치되며 도시의 이념은 강도로 지각되고, 현실성의 층위에서 감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실화된 장소의 특성은 다시 도시에 대한 물음을 던

지며 잠재성의 이념을, 다시 말해 도래할 수행과 생성의 배치를 미시적으로 바꾸어낸다. 이렇듯 현실성의 층위가 함축하고 있는 잠재성의 층위로 인해 수행성이 만들어내는 연결은 동일성의 장소가 아닌 차이의 장소를 생성한다. 따라서 수행성은 기존의 의미와 단절하며 차이를 생산하고, 장소를 예상치 못한 미래로 개방한다.

한편 수행성이 만들어 낸 장소 역시 수행성을 가지며 다른 개체들의 행위에 관여한다. Thomas는 미국의 고등학교 급식실을 연구하여 공간의 수행성을 보여준 바 있다. 해당 학교의 급식실은 명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에도 흑인과 백인 학생들은 급식실에 따로 착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같은 인종끼리 모여 앉는 일상적 실천의 수행성이 분리된 급식실이라는 장소를 만들어내지만, 반대로 급식실의 수행성 역시 존재한다. 분리된 급식실의 수행성은 다시 일상의 인종화된 규범과 신체를 생산하며 학교에서의 일상적 실천에 분리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Thomas, 2005). 이처럼 장소는 수행성의 산물인 동시에 그 자체로도 수행성을 지닌다. 개체의 수행성과 장소의 관계는 수행성이 장소를 생산한다는 일방적 관계만을 가지지 않으며, 배치된 장소 역시 개체들의 수행성을 새롭게 배치한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수행성은 여러 개체들을 연결하는 힘으로 작용하며 장소를 생산한다. 이때 현실성의 층위 아래에 존재하는 수많은 특이성으로 인해 수행성을 통한 배치의 생성은 동일성의 반복이 아닌 차이의 반복으로 펼쳐진다. 즉 이념으로 인해 장소와 세계는 끊임없이 상이한 배치로 생성하며, 장소에 고정된 보편적 의미 역시 와해된다. 이렇게 생산된 장소 역시 수행성을 가지며 새로운 수행의 가능성과 제약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장소 생산에 관여한다. 장소의 수행성은 다른 수행성의 척도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얽힘에서 행위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장소 개념을 배치로 전환하는 사유는 장소의 변이와 차이에 주목하여 실제 삶의 장소를 사유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III. 감응 기반 장소감으로의 전환

1. 감응(affect)의 창발과 장소-되기

그동안 세계에 특정 질서와 원리를 부여하려 했던 많

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하나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닌다. 배치의 사유는 동일성으로 고정되어 있던 세계를 차이와 변이로 개방하며 세계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한다. 배치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것이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의도, 목적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생산된 것을 통해 포착하는 것이라면, 배치로 산출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질적 개체들은 배치를 통해 기존의 의미와 감각에서 새로운 변이로 이행하며, 이는 존재 능력을 고양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개체들과의 배치를 통해 개체들이 연결되며 그 ‘사이’에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감응(affect)이다.

감응이란 신체 간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행위역량의 변이이다(Deleuze 저, 서창현 역, 2005). 여기서 ‘신체’는 인간 신체뿐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신체, 담론, 관념 등을 포함한다. 즉 감응이란 단일하고 유기적인 신체가 지향성의 작용으로 산출하거나 주관적으로 대상에 부여한 의미가 아니라 배치의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변이하는 것은 감정이거나 정서가 아니라 힘이자 에너지 및 역량이며, 따라서 감응의 생성은 곧 존재 능력의 변이를 나타낸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장소를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정신적 표상의 결과만은 아니다. 통근길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반면에 산책로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의 배치에서 조우하는 다른 신체들과의 뒤섞임이 신체의 역량을 파괴하고 손상시키기도 하며 반대로 고양시키기도 한 결과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장소를 동일성으로 지각하지 않으며 그 차이들을 감각하고 있다. 이는 Deleuze의 주장과 같이 우리가 대상을 감응으로 만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야구장을 방문하였을 때 장소의 의미를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기장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날의 경기 흐름과 선수들, 관중들 등 많은 신체들이 만들어 낸 폭발적인 응원 함성과 열기, 흥분과 열정의 분위기로 이해한다. 그리고 앞서 Bissell(2018)이 제시한 통근 열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대중교통 또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하는 수송 수단의 의미를 넘어, 긴장과 평안, 불안과 분노 등이 공존하는 감응의 장소이다. 이러한 감응은 개체들 사이의 조우에서 발생하며, 각각의 조우 결과는 존재들이 어떤 형태의 구성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변화된

다(Thrift, 2004, 62). 따라서 감응은 재현적 차원에서 언어로 포착하기 쉽지 않으며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한 까닭으로 장소와의 만남에서 생성되는 감응은 장소의 특성을 동일성으로 환원하려는 힘에 반(反)하여 장소의 복잡성을 사유하는 기반이 된다.

이처럼 감응은 장소 배치의 결과로 신체들 ‘사이’에서 생성되는 것이기에, 개인의 주관적 의미로 소유될 수 없으며 ‘사이’를 흐른다. 즉 감응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사물에 연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다(Anderson, 2014a, 765). 감응이 장소와 인간 및 비인간, 세계를 연결하며 흐르는 까닭으로 우리는 장소를 지각하며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Deleuze와 Guattari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우리는 변이하는 신체의 감응을 지각함으로써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신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신체의 감응이 무엇인지, ... 어떻게 이 감응들이 다른 감응들, 다른 신체의 감응들과 함께 구성될 수 있거나, 구성될 수 없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신체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Deleuze and Guattari 저, 김재인 역, 2001, 488).

한편 감응은 행위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 능력을 의미하는 까닭으로(Anderson, 2014b, 88), 다른 대상과의 만남은 새로운 존재 능력을 구성해낸다. 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감응은 미시적 차원에서 또한 신체의 역량을 끊임없이 구성한다. 따라서 감응을 이해하는 목적은 단지 감응을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응을 통해 다른 신체들과 만나며 다른 개체들의 삶을 사유하고, 느끼고, 개체들과 자신의 역량을 고양하는 힘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aldanha, 2017, 130). 이처럼 이질적 신체들의 만남으로 기존의 신체에서 변이하여 다른 신체를 구성하는 것을 ‘되기(becoming)’라 한다. 신체가 다른 것이 된다는(becoming) 것은 배치를 통해 사이에서 생성된 감응을 감각하고, 자신의 신체 역량이 변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응이 항상 감응하고 감응되는 상관적 작용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감응적 관계는 하나의 개체가 다른 개체에 미치는 단독적 혹은 일방적인 영향이 아니다(Slaby and Mühlhoff, 2019, 31).¹⁰⁾ 배치의 순간 배치에 연

결된 신체들은 모두 기존의 상태에서 탈영토화하여 변이한다. 따라서 되기는 언제나 배치된 항들의 ‘사야’에서 발생하며, 구성되는 항 모두의 변이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장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되기가 감응이 신체에 감각되며 새로운 신체를 구성하는 상관 작용임을 고려할 때, 장소-되기(becoming-place)란 장소와의 배치에서 발생한 감응으로 장소의 새로운 의미와 조우하며, 자신의 신체 역량 또한 새로이 구성되는 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여기서 장소-되기의 두 가지 동시적 차원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장소의 탈영토화를 통한 새로운 의미 생성의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신체 역량이 탈영토화하여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이다.

먼저 장소의 탈영토화를 통한 의미 생성의 차원을 살펴보면, 장소-되기는 장소와 다른 신체들의 얽힘으로 기존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특이성이 창발하는 과정이다. 이는 A에서 B로의 선형적 변화가 아니라, 장소의 미시적 특이성이 더해지며 장소의 의미의 지대가 확장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소-되기는 정해진 목적지를 갖지 않으며 선형적 방향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즉 되기에는 ‘되어 가야만 하는’ 어떠한 투사(tracing)의 대상도, 궁극적으로 수렴되어야 할 고정된 목적지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고정된 의미들을 뒤흔들고 통념과 상식에서 미끄러져 새로운 의미를 창안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모든 되기는 소수자-되기이다(Deleuze and Guattari 저, 김재인 역, 2001, 550).

장소-되기가 장소의 미시적 차이를 지각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곧 다수적인 장소의 의미를 벗어나 소수적 의미를 창안하는 것이다. 이는 장소와 배치되는 항들의 이념의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특이성들을 고정된 의미로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펼쳐질 배치의 잠재성을 긍정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장소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장소-되기는 동일성에서 벗어난 차이생성의 사유에 기반한 장소와의 만남을 의미한다.

이를 Deleuze와 Guattari의 흠 패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볼 때, 장소-되기는 매끄러운 장소를 창안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흠 패인 공간(striated space)은 정해진 흠을 따라가도록 이미 경로가 설정된, 중심과 척도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즉 흠 패인 공간은 표준에 의해 정의되고 척도적인 유클리드적 공간이

다. 흠 패인 공간은 초월적 중심으로 차이들을 끌어들이며 그것을 등질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반면 매끈한 공간(smooth space)은 차이들을 동일성으로 포획하는 중심이 없는 비중심화된 공간이다. 매끈한 공간은 차이를 균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질성을 보존하며, 이질성들 간의 결합을 통해 창발하는 다양체이다. 따라서 매끈한 공간은 불규칙하고 비결정적인 비유클리드적 공간이며, 특개성이 충만한 감응의 공간이다.

하지만 흠 패인 공간과 매끈한 공간은 결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매끈한 공간은 항상 흠 패인 공간으로 번역되고 횡단하고 있으며, 흠 패인 공간은 매끈한 공간으로 항상 반전되며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Deleuze and Guattari 저, 김재인 역, 2001, 907). 즉 어떠한 공간도 완벽하게 매끄럽거나 완벽하게 흠 패인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양상은 항상 혼재되어 있다. 같은 도시를 여행하더라도 도시의 흠을 따라 여행할 수도 있고, 매끈한 공간을 만들며 여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장소-되기는 소수적 의미를 창안한다는 점에서 탈영토화의 운동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장소의 특이성이 다시 특정 의미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영토화의 운동으로 연결된다. 즉 장소-되기는 장소와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탈영토화이자 영토화의 역동적 과정이다. 장소와의 배치에서 생성되는 상이한 감응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운동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장소-되기의 또 다른 차원은 자신의 신체 역량이 탈영토화하여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신체를 통해 장소와 얽히며 장소-되기가 발생한다. 장소와 인간 및 비인간 신체들이 배치의 구성으로 얽혀 들어가는 것은 곧 장소를 ‘체현(embodiment)’하는 것이다. 체현은 우리의 신체에 대해 알고 신체를 통해 배우는 실천을 의미한다(Page, 2020, 96). 체현은 만남의 대상이 신체 내부에 착근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복잡한 얽힘과 생성의 과정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장소-되기는 체현을 통해 세계와 만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소를 체현하는 장소-되기는 수행성의 강화로 연결된다. 가령 목수의 나무-되기는 나무의 특이성들과 결합하여 나무에 대한 감각을 고양하는 과정이다(Deleuze 저, 서동욱, 이충민 역, 2004). 나무에 대한 감각은 단지 ‘느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대해 사유하고 나무를 변

용시키며 그것에 대한 행위력을 확장하는 것을 뜻한다. 즉 감응은 특정 장소 내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독특한 감정 상태의 집합과 그 공간에서 경험되는 행위 잠재력, 표현, 역량 및 실천의 저장을 설명한다(Duff, 2010, 885). 이 점에서 장소-되기는 장소의 잠재성에 내재한 수많은 특이성들과 결합하며 장소에 대한 감각을 고양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수행성의 바탕을 마련한다.

요컨대 장소와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감응이 변이하는 장소의 특이성을 나타낸다면, 그것을 신체의 변이를 통해 지각하는 것이 장소-되기(becoming-place)이다. 장소-되기는 장소가 지닌 잠재성의 모호함을 해독해 낯선 의미로 만나는 과정인 동시에 신체에 장소에 대한 미세 감각들을 발생시켜 역량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장소-되기는 장소와 세계의 새로운 의미들을 포착해내는 방법이자 역량인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고양해나가는 배움(apprendre)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장소감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감응 기반 장소감으로의 전환

Agnew(1987)는 ‘의미 있는 곳’으로서 장소의 세 가지 기본적 특징 중 하나로 장소감을 언급하며, 장소감(sense of place)이란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애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Cresswell 저, 심승희 역, 2012, 9, 11). 이 같은 장소감은 인간주의 지리학의 등장과 함께 특히 주목받게 되었으며, 장소감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은 장소의 독특함과 특수성을 강조하고 세계 내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조명하였다(Chen, 2020, 147).

인간주의 지리학은 장소의 의미를 하나로 수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거부하고, 장소에 대한 개인의 사적이고 주관적인 의미와 감정의 총체인 장소감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장소와 조우하며 장소에 대한 유대감과 애착을 형성하고, 장소에 ‘속해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장소감은 개인적 의미의 형성과 더불어 집단 내에서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장소를 이해하는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Relph(1976)는 장소감을 실존적 외부성에서부터 실존적 내부성에 이르는 스펙트럼으로 제시하며, 이를 진정성(authenticity)과 비진정성(inauthenticity)으로 구분 짓는다.

여기서 인간은 세계-내-존재로서 거주지 장소에 뿌리내려야 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인간 존재의 토대로서 장소는 강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토박이로서의 장소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토박이로서의 정체성은 자신을 그 장소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한편, 타자를 ‘그 장소’에 대한 소속감의 강도에 따라 판단하며 ‘낯선’ 이들에게 ‘우리’ 장소에 길들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즉 장소감의 개념에는 진정성(authenticity)이라는 본질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진정성은 내부와 외부, 장소와 공간, 내부자와 외부자 등을 구분하는 경계를 끊임없이 생산한다. 그리고 경계는 내부에서의 특정 문화와 규범을 생산하며, 차이를 ‘위반’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행자, 방랑자, 유목민, 이주민들은 참된 장소감을 가져야 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들로 규정된다. 결국 내부자와 외부자의 대립 구도 속에서 외부자에 대한 배제와 소외가 생산된다.

그러나 모빌리티로 변화된 사회 흐름 속에서 기존의 장소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장소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비판은 주로 모빌리티에 따른 장소감의 부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Relph(1976)는 현대 사회에서 기존의 장소들이 인공경관, 가짜 장소로 대체되며 진정한 장소감이 상실되어 가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타자 지향 장소는 장소에 내린 뿌리를 뒤흔들며 장소의 영속성을 일시성으로, 안정성을 불안정성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장소감이 형성될 수 없으며 무장소성(placelessness)만이 존재하게 된다.

한편 Meyrowitz(1986)는 인쇄 매체에서 전자 미디어로 발전하며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상황 간의 전통적 관계가 약화되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당시는 TV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전자 미디어의 발달은 물리적 공간과 정보적 접근 사이의 관련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접근과 이동성을 제공한다고 보았다(Meyrowitz 저, 김병선 역, 2018). 그 결과, 장소와 시간의 특별함이 파괴되며 장소감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Meyrowitz에게 장소감이 부재한 상황은 진정성을 잃어버린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표 2. 장소감의 부재에 대한 관점

특성	Relp(1976)	Meyrowitz(1986)	Augé(1992)
환경의 변화	표준화를 조장하는 대중문화, 다국적 기업	전자 미디어의 발달	초근대성으로 인한 모빌리티의 변화
변화 양상	타자지향 장소의 확대와 장소의 획일성에 따른 장소의 비진정성 (inauthenticity)	물리적 장소와의 관련성 약화 및 새로운 사회적 접근과 이동성 제공	일시성과 이동성을 특성으로 하는 장소 증가
장소감이 부재한 상황 규정	무장소성 (placelessness)	장소감의 상실 (no sense of place)	비장소 (non-place)

Augé(1992)에 따르면 오늘날 전통적인 영속적 장소를 대신하여 ‘비장소(non-place)’가 등장하였다. Augé가 말한 비장소는 고속도로, 공항과 같이 순식간의 것, 일시적인 것, 수명이 짧은 것이다. Augé는 현실 세계에서 장소와 비장소는 서로 얹혀있으며, 끊임없는 뒤엎힘의 유희 속에서 모든 장소는 비장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Augé 저, 이상길, 이윤영 역, 2017).

이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장소감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와 장소가 아닌 것을 대립 구도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한계를 지닌다. 즉 장소와 장소감을 여전히 정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남겨두고, 모빌리티에 따른 새로운 공간의 의미를 무장소성으로, 장소감의 상실로, 또 비장소로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장소감에 대해서는 정주의 형이상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dams(1992)는 TV를 ‘새로운 장소’로 간주함으로써 시공간의 압축으로 인한 장소의 개념 변화를 설명한 바 있다. 즉 TV의 출현으로 영상이 특정한 관람 장소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비로소 화면의 영상은 독자적인 장소감을 창출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TV는 과거 장소가 하던 기능을 떠맡은 셈이며, 이러한 점에서 TV는 위치가 결여된 장소라 할 수 있다(Adams, 1992; 권정화, 1995, 107-108에서 재인용). 이제 장소는 더 이상 대지에 기반한 물리적 장소 개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Massey(2005) 역시 시공간의 압축과 글로벌화가 장소를 축소시키거나 파괴한다고 보는 지배적인 가정에 문제를 제기한다. Massey는 장소를 수없이 많은 일상적 교섭과 경합의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소감 역시 정적이고 고립된 것이 아니라 다양성, 관계성,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

다(Chen, 2020, 148). 즉 사람들이 어떤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장소 주변의 경계나 장소의 불변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Massey는 이렇듯 외부로 향하고 진보적인 장소감을 글로벌 장소감(global sense of place)이라 하며, 본질주의에 토대한 장소감을 유동적이며 역동적인 것으로 전환한다.

그렇다면 배치로서 장소를 개념화할 때, 장소감 개념은 어떻게 전환되는가? 장소는 미시적으로 끊임없이 변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 매일 마주하는 장소에서 반복되는 리듬을 포착할 수 있다. 반복되는 사건에서 발생한 감응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일관성을 나타낸다. 가령 매일 교실에서 교사와 어린이, 교육과정과 교과서, 물리적 환경과 학급 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상이한 방식으로 얹히며 새로운 사건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실에 관한 차이의 감각과 동시에 교실을 모종의 일관성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는 교실을 학습 공간이라는 고정된 의미로 인식한 결과라기보다, 교실과 얹혀 발생한 다양한 사건에서 생성된 감응이 차이로 반복되며 일관성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치로서의 장소는 모종의 의미를 가지는 안정성과 안정성을 동요시켜 새로운 의미를 창안하는 불안정성의 측면을 함께 지닌다. 그렇다면 기존 장소감이 장소와의 유대로 발생하는 의미, 정서, 감정 등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소감은 배치가 지닌 안정성의 측면을 인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장소감의 안정성이 폐쇄적인 경계를 새기며 정적인 것으로 귀결되었다면, 감응은 끊임없이 이행하며 장소에 대한 감각은 역동성에 개방된다. 즉 장소와의 만남을 통해 차이의 감응이 반복적으로 새겨지며 장소에 대한 감각(sense of place)을 형성해나가는 영토화의 측면이 ‘장소감’

인 것이다. 따라서 장소감은 장소-되기의 과정에서 의미가 영토화하는 측면에서 형성되는 장소에 대한 감각과 이해로 볼 수 있다. 이는 특정한 의미와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장소의 상이한 의미의 지대에 열려있는 장소에 대한 이해이자 감각이다. 즉 장소감이 기존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임은 변함없지만, 감응에 기반한 장소감은 변이하는 장소를 역동적으로 인식한 결과로 발생한다. 그 결과 장소감은 장소에 대한 모종의 인식을 포함하면서도 내부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지 않으며, 장소의 미시적 차이를 감각하고 끊임없는 변이를 긍정한다.

감응에 기반한 장소감과 본질주의적 장소감의 가장 큰 차이는 의미의 방향성에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질주의 관점에서 진정한 장소감은 고정된 장소 위에 인간의 장소 경험들이 더해지며, 주체가 장소와 합일을 이루는 측면에서 인간이 곧 장소임을 뜻하였다. 이때 변환의 움직임은 더 진정한 의미로 향하는 선형적 방향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장소-되기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장소감은 장소의 특정한 의미로 영토화하지만, 언제나 탈영토화의 침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의 의미에 언제나 다른 의미로의 이행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는 장소의 내부성으로 향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며, 원주민이었던 인간은 자신의 장소에서조차 이방인이 된다. 이방인은 더 이상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한 장소를 낯설게 봄으로써 장소의 특이성들을 지각해나가는 자가 된다.¹¹⁾ 이는 장소를 ‘내부’와 ‘외부’로 명확히 규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그 중 어느 하나가 가치의 우위를 나타낼 수 없음을 뜻한다.

요컨대 본질주의적 장소감이 정주(定住)의 장소감이라면, 감응에 기반한 장소감은 영토화의 장소감이라 할 수 있다. 정주가 점(point)의 사유라면, 영토화는 선(line)의 사유다. 정주는 그 자체가 목적지로서, 다른 의미로의 변환조차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으로 포섭되어버린다. 반면 영토화는 특정 의미를 가질지라도 늘 탈영토화하는 변이의 선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장소에 대한 특정한 의미와 감각은 새로운 차이로 이행한다. 즉 장소감은 차이의 감응이 반복으로 새겨지는 장소에 대한 의미와 이해인 것이다. 장소감을 이처럼 감응에 기반한 역동적 과정에서 영토화의 측면으로 다룬다면, 우리가 장

소에 대한 특정한 의미와 감각을 갖는다는 기존의 사유와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서 장소를 사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V. 장소 개념 전환의 지리교육적 함의

1. 장소에 대한 물질/분자적 관점의 종합

현재 초등 사회와 교육내용의 구성원리로서 제시된 탄력적 환경확대법은 각각의 공간 스케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스케일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탄력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탄력적 환경확대법은 어린이들의 공간인식이 생활세계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확장된다는 기존의 환경확대법의 기계적 적용을 넘어서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이라는 표현은 스케일이 선형적이고 순차적으로 확장된다는 관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할 뿐, 다중적이고 변이하는 스케일의 ‘탄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탄력적 환경확대법은 스케일 배열의 유동성에 관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면 장소 학습을 구성하는 원리로서 환경확대법에 대한 논의는 스케일의 배열에 관한 문제를 넘어, 스케일 그 자체에 관한 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배치로서 장소를 바라보는 관점은 스케일의 한계로 지적된 위계성과 총체성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다양한 요소들의 연결성에 주목하는 배치의 관점에 따르면, 스케일은 수직적 위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배치의 관점은 수직성을 가정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Saldanha, 2017, 98).¹²⁾ 이렇게 볼 때 지리교육에서 스케일은 현상이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들이 결합되거나 분리되는 역동적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스케일을 본질주의적 범주 체계나 인식론적 프레임이 아니라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렌즈로 볼 수 있다면, 실재하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스케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Saldanha(2017)는 이러한 대안적 접근으로 Deleuze와 Guattari의 물질/분자적 수준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물질적 것(molar)은 상이한 차이의 흐름을 가두어 특정 의미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며, 분자

적인 것(molecular)은 그러한 동일성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미시적 흐름을 뜻한다. 우리가 조우하고 있는 공간의 분절된 양상은 현실성의 층위에서 물적으로 파악한 결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케일은 일차적으로 물적이다. 물적인 스케일은 특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모종의 의미로 지각된다. 스케일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 현상과 사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또 반대로 그것들에 의해 스케일의 경계와 힘, 역량 등이 변이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케일의 의미는 선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배치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물적인 스케일에는 스케일에 따른 미리 가정된 논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로컬, 글로벌이 이미 존재하는 세계가 아닌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배치들로 인해 생성되는 스케일에서 살아간다. 우발적 배치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스케일에는 정해진 행위자나 논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스케일의 의미는 그 특정 배치의 맥락 내에서 유효하다.

또한 스케일은 모종의 일관성을 가지며 특정 의미를 나타내지만 언제나 다른 외부와의 만남을 통해 상이한 의미로 이행하거나 스케일 자체가 변이할 수 있는 가능성에 개방되어 있다. 이처럼 스케일이 변이할 수 있는 까닭은 물적 스케일에는 동일성에 공명하지 않는 차이들, 혹은 동일성의 층위 아래에서 변이하는 흐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정 스케일로 포획된 공간적 범위 내에는 수많은 이질적 흐름들이 서로 리즘적으로 접속하며 얹히는 과정에서 상이한 특이성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전쟁은 분명 국가 스케일 혹은 글로벌 스케일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는 전쟁을 선포할 수 있지만, 현대 도시는 전쟁을 선포할 수 없다. 전쟁과 세계 질서는 군-산업-경제-정치 복합체의 전략과 관련되는 물적인 과정이지만, 그러한 물적 스케일의 배치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 공포, 저항, 조작 등의 분자적 흐름 역시 존재한다(Saldanha, 2017, 96, 102).

이렇게 볼 때 물적인 것과 분자적인 것은 결코 이항대립적 개념이 아니다. 두 가지 특성 모두 모든 사회와 개인, 개체들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따라서 물적/분자적인 것은 하나의 개체 혹은 현상이 지닌 두 얼굴이라 할 수 있다(Saldanha, 2017, 101). 물적인 것은 각각의 특이성으로 존재하는 분자적 흐름을 응결하여 특정 의미로 지각

된 것이므로,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세계를 포착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이다. 따라서 물적/분자적 관점에서 스케일을 이해한다는 것은 Massey의 주장과 같이 로컬 자체에 이미 글로벌과 같은 상이한 스케일이 결합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스케일에도 미시적 차이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포착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스케일은 물적인 동시에 분자적인 까닭으로 고정된 경계선이나 내재된 인식 논리를 가지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이한다. 분자적 특이성들은 분자적 수준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의 층위로 분화되어 특정 사건과 스케일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그러한 차이의 움직임들로 인하여 스케일에는 언제나 상이한 배치로 변환하는 탈영토화의 침점이 존재하게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스케일은 비위계적으로 연결된다. 그동안은 스케일 범위의 확장에 따른 위계적 선분을 상정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선형적 질서 내에서만 다른 스케일과 관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생성과 변이의 관점에서 스케일은 리즘적으로 연결된다. 스케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양상으로 존재하며, 특이성들의 차원인 분자적 측면은 하나의 스케일이 다른 스케일을 완전히 포섭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로컬은 국가에 의해 완전히 포획되지 않으며, 글로벌 역시 로컬의 상위 개념이 아니다. 즉 상이한 스케일들은 위계적으로 중첩되어 수직적으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비위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케일 간의 관계는 부분과 전체로 환원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체’로서의 스케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가령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로컬과 국가, 글로벌 스케일이 연결된다고 할 때, 그것은 ‘전체’로서의 스케일들이 총체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로컬과 국가, 글로벌 스케일의 ‘부분’들이 연결되며 배치가 발생할 때, 특정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Strathern(2005)이 주장한 바와 같이 스케일들 간에는 비교 가능한 단위란 존재하지 않으며, 통약불가능성을 지닌다.

이처럼 배치의 관점은 지리교육에서 스케일을 다층적 관계성과 역동성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간과되었던 분자적 차이의 흐름에도 주

목함으로써 사건과 현상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스케일은 현행 사회와 학습 내용의 계열성(sequence)의 문제라기보다 장소를 이해하기 위한 다층적 관점이다. 즉 스케일의 연결과 역동성을 통해 장소를 포착하는 물적인 관점과 스케일의 아래에 존재하는 차이들을 통해 장소를 이해하는 분자적 관점을 종합하여 이해할 때, 장소에 배치되는 거시적 특성들과 미시적 차이의 관계성이 생성하는 ‘사건’에 주목할 수 있다.

2. 감응적 만남에 열려 있는 다공적 장소 개념

우리 삶은 장소를 비롯한 다양한 신체들과의 만남으로 직조되며, 감응은 그러한 만남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나타난다. 감응은 다른 신체와의 만남에서 이념의 세계로 뛰어들어 그것의 특이성을 감각하는 역량이다. 따라서 감응으로 장소를 배운다는 것은 규정된 장소 지식을 수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의 지대에 존재하는 장소의 특이성을 긍정하며 장소의 변이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질적인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불투과성의 경계가 아니라, 차이의 넘나들을 허용하고 이질성을 긍정하는 특성을 ‘다공성’이라 한다.¹³⁾ 즉 장소의 다공성이란, 장소의 특성을 명확하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경계를 통해 이질적 차이들이 드나들으로써 장소를 역동적으로 변이하게 하는 특성을 가리킨다. 다공적 장소의 핵심적 특성은 경계의 불명확성이다.

배치의 과정에서 생성되고 변이하는 장소는 애초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 Benjamin은 나폴리를 ‘울퉁불퉁한’ 다공성의 도시로 설명한 바 있다. 즉 나폴리는 특색 있는 공간적 배치도, 명확한 경계도 없는 도시이다 (Gilloch 저, 노명우 역, 2005, 57). 나폴리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경계를 지닌 까닭으로, 특정한 공간적 구획에 따른 고정된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내부와 외부, 종교와 세속, 익숙함과 낯섬의 혼종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계의 부정이 아니라, 경계의 투과성을 이해하고 차이의 드나들을 긍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교육에서 이처럼 장소를 다공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은 장소 학습의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배치로서의 장소 개념은 다양한 특이성으로의 변이에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리교육은 장소 지식 전달하는 과정

이 아니라 물음을 던지는 과정이 된다(Doyle, 2019, 154). 문제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장소 개념에 대한 이해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총체적 이해에 다가가지 못한 결여의 관점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생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장소 개념은 폐쇄적인 경계를 가지지 않기에 새로운 의미가 창발된다. 즉 장소 개념은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는 ‘가능성의 공간’(Osberg, 2008)인 것이다. 가능성의 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현실성의 차원에 존재하는 장소의 상이한 의미들뿐만 아니라, 잠재성의 지대에서 앞으로 창발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들을 긍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개념의 창조가 ‘진보적인’ 까닭은 개념이 주어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것을 끊임없이 정교화하기 때문이다(Davis and Sumara, 2008, 57). 이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연결은 동일성의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생성을 전제로 한다. 이는 새로운 지식과 의미가 생성하고 발전하는 실천으로서 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emetsky, 2011, 140). 따라서 지리교육에서 장소를 배운다는 것은 확립된 해석 습관을 연속화하기보다는 가능성의 공간을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며, 그리하여 아직 상상할 수 없는 것의 창발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Davis and Sumara, 2008, 135).

또한 다공적 장소를 통한 배움은 지리교육에서의 윤리적 차원으로도 연결된다. 장소 경계의 불확실성은 차이와의 연결을 긍정하고, 결과적으로 장소를 ‘복잡하게’ 만든다. Sennett(2018)은 장소의 단순성과 명료성이 타자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반면, 장소의 복잡성은 이질적 타자들을 긍정한다고 말한다. 즉 장소의 복잡한 특성은 그 장소에 특정한 자격이 부여된 이들만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장소에서 타자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차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타자의 존재로 인하여 장소와 자신 역시 생성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장소-되기로서의 배움은 타자와의 얽힘의 과정에서 기존의 익숙한 코드를 변환하여 타자의 특이성과 결합하며 새로운 환경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자는 소외와 배제의 대상에서 이질적이고 복잡한 기호로서 변이와 생성을 촉발하는 존재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지리교육에서 장소 개념의 전환은 수행성 및 실천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장소 배치는 일상의 수행성으로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감응은 새로운 수행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배움의 과정에서 어린이와 장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응은 어린이들이 일상적 삶에서 장소를 조우하며 실천하는 수행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리교육이 삶의 장소와 연결됨으로써 삶과 배움이 결코 괴리된 것이 아닌, 함께 얽혀 내부 작용하는 관계임을 의미한다. 요컨대 장소 배움은 경계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만들어내는 장소의 복잡성과 풍부함, 역동성을 인식함으로써 타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불투과성의 장소를 경계하고, 이를 통해 일상적 장소에서의 윤리적 관계 맺음과 실천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고정성과 불변성, 영속성을 전제한 기존 장소의 대안으로서, 변이의 흐름에 개방된 생성적 관점에서 장소 개념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Deleuze의 사유에 기반하여 배치로서의 장소를 개념화하고, 장소 개념의 전환을 바탕으로 장소와 공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였다. 또한 감응과 되기 개념을 통해 본질주의적 장소감을 감응에 기반한 장소감으로 전환하여 논의하였다.

배치는 돌담으로 쌓아 올린 벽과 같이 분명 하나의 벽을 형성하긴 하나, 이러한 파편적 벽들로 쌓아 올린 것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벽이 아니다(Deleuze and Guattari 저, 이정임, 윤정임 역, 1995, 39). 즉 장소는 다양한 물질적·표현적 요소들이 연결되고 다시 분리되는 역동적 배치이다. 배치로 생성된 안정성은 고착화로 이어지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역동적 과정에서 불안정성과 변이의 지대로 연결된다.

이질적 개체들의 수행성은 장소 배치의 연결을 생성하고, 배치에서 창발한 장소 역시 특정 수행성을 지니며 새로운 수행 가능성과 제약의 잠재성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장소 배치가 끊임없이 변이하는 까닭은 경험적 차원에서 지각 가능한 현실성의 차원 아래에 잠재성의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소의 이념의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특이성들은 다른 외부와의 접속 양상에 따라 상

이한 배치를 형성하며, 이로 인해 장소의 본질과 고정성은 와해된다.

한편 이질적 개체들이 연결되어 배치될 때 그 사이에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감응이다. 우리는 일상적 삶에서 장소를 이성적 사유로 분별하기보다 그것을 감응으로 지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감응을 통해 장소의 특이성을 포착하는 동시에 자신 역시 새로운 신체로 변이하는 과정을 ‘장소-되기’로 개념화하였다. 장소-되기는 장소와의 만남에서 장소의 특이성을 지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체 역시 변이하는 과정이다. 이는 장소의 새로운 의미를 포착하고 역량을 고양해나감에 장소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주에 기반한 장소감 역시 역동적 변이의 과정에서 특정 의미를 감각하는 영토화 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소감이란 감응에 기반하여 특정 의미의 지층에서 장소가 지닌 잠재성의 모호함을 해독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장소를 알게 되고 배우는 과정으로 그 의미가 전환되어야 한다.

장소와 장소감의 개념 전환은 지리교육의 방향에도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치의 관점은 지리교육에서 스케일이 지닌 위계성과 총체성을 해체하고, 스케일을 다층적이고 역동적으로 변이하는 것으로 다루기 위한 기반이 된다. 또한 이 같은 관점은 지리교육에서 다루는 장소를 감응적 만남에 열려있는 다공적 장소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다공적 장소는 이질성과 차이에 열린 투과성의 경계를 지닌 까닭으로 장소를 복잡하고 풍부하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소에서 타자를 배제하거나 소외하지 않는 윤리적 관계 맺음과 실천으로도 연결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리교육에서 장소를 배운다는 것은 실제 삶과 장소 학습 사이의 간극을 좁혀, 삶과 배움이 연결되고 얽히는 과정에서 장소의 미시적 의미들을 생성해나가는 과정이자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주

- 1) Massey(2005)가 space(공간)로 표기한 것을 글의 흐름에 따라 ‘place(장소)’로 옮겼다. Massey 역시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본 논문에서는 공간과 장

- 소를 배치의 운동 과정에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재개념화하였다. 따라서 두 개념 사이의 구분은 논의의 초점이 아니므로 맥락에 따라 ‘공간’ 또는 ‘장소’로 사용한다.
- 2) 창발성(emergency, emergent property)은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전통의 핵심 요소이다. 이는 구성요소의 속성을 합산하거나 평균화하여 전체의 속성을 추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Buchmann, 2015). 즉 창발성은 하위 계층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성질이 새롭게 발현되는 것을 말한다. 배치는 이질적 개체들이 연결되어 개체들이 이전에 지니지 않았던 새로운 속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측면에서 창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3) 프랑스어 agencement은 영어 단어 assemblage로 번역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프랑스어에도 assemblage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어 assemblage는 혼합(blending), 병합(collating), 수집(gathering), 결합(joining)의 뜻을 나타내며 주로 기술적 용어로 제한된다. 이는 예컨대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모음이나 예술에서의 콜라주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프랑스어 agencement은 배열(arrangement), 조립(fitting) 또는 고정(fixing) 등의 뜻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신체나 기계의 부분들의 배열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Phillips, 2006, 108). 요컨대 프랑스어 assemblage는 함께 모이는 것, 결합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 agencement은 구성, 배열, 배치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용법으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프랑스어 assemblage가 하나의 집합체로서 모이는 것이라면, agencement은 이질적인 요소들의 배열 혹은 배치를 의미한다(Nail, 2017: 22) 최근 Deleuze의 ‘배치(agencement)’ 개념을 ‘아상블라주’로 번역하는 사례도 있으나, 프랑스어 agencement(아장스망)과 assemblage(아상블라주)의 의미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agencement을 ‘배치’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4) 다양체(multiplicité/multiplicity)는 대상 안에서 주축 역할을 하는 통일성도 없고 주체 안에서 나뉘는 통일성도 없다(Deleuze and Guattari 저, 김재인 역, 2001, 21). 즉 다양체는 외부에 의해 정의되며, 외부와의 만남에 따라 본성이 변이하기 때문에 그 본질이나 통일성을 갖지 않는다.
 - 5) 내부 작용(intra-action)이란 Barad(2007)의 용어로, 상호작용에 앞서 개별적 행위자가 있다고 가정하는 일반적인 ‘상호작용’과는 대조적으로, 개별 행위자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작용을 통해 창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위자들은 상호 얽힘과 관련됨으로써 구별되며, 행위자들은 별도의 개별적 요소로 존재하지 않는다(Barad, 2007, 33).
 - 6) 특개성(heccité/thisness)이란 지속성을 갖는 특정한 성질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개별성(individuality)’과는 달리, 어떤 개체에 고유한 것이지만 시간과 공간은 물론 이웃 관계의 조건, 배치와 강도 등에 따라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을 뜻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의될 수 없고 그때마다 직관으로 포착될 수밖에 없는 모종의 감응을 뜻한다(이진경, 2002, 196).
 - 7) Dovey(2020)는 Heidegger의 세계 내 존재(being-in-the-world)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Deleuze의 존재론에 기반한 ‘세계 내 생성(becoming-in-the-world)’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Deleuze의 되기(becoming) 개념은 세계 ‘내(in)’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 세계 ‘와(with)’ 얽혀 발생한다고 보아야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므로, ‘세계와의 생성(becoming-with-the-world)’이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8) Deleuze는 잠재적 차원을 ‘이념(idea)’으로 설명한다. 서구 철학의 오랜 전통에서 이념은 형상이자 초월적 존재로서 동일화하는 힘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Deleuze의 이념은 전체성과 통일성으로서의 이념 개념을 전복하며, 이념을 잠재성의 무수한 ‘차이들’로 바꾸어낸다. 따라서 이테아는 시뮬라크르의 자리로 내려오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 9) 잠재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에 대립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것에 대립할 뿐이다. 잠재적인 것은 잠재적인 한에서 어떤 충분한 실재성을 소유한다(Deleuze 저, 김상환 역, 2004, 449-450).
 - 10) 예컨대 오르키데라는 난초와 식물은 암컷 말벌 이미지를 만들어 수컷 말벌을 끌어들이고, 말벌은 난초의 수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즉 말벌은 난초를 재생산하는 도구의 일부가 되고, 동시에 난초는 말벌의 생식 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는 난초의 말벌-되기와 말벌의 난초-되기라는 이중 포획이다(Deleuze and Parnet 저, 허희정 역, 2005, 9). 이러한 되기의 블록은 난초와 말벌 사이의 혼합이나 결합이 아니며, 두 항 모두의 탈영토화를 수반하며 공통의 이웃 관계 속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되기의 블록은 배치 사이를 횡단하여 언제나 항들의 기존 경계를 뒤흔들며 불안정하게 하여 그것을 변이의 지대로 만든다.
 - 11) 원주민과 이방인을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생성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Deleuze와 Guattari의 사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는 이중의 생성 안에서 교차한다. 이방인은 이방인이 아닌 타인의 영토에서 원주민이 되며, 동시에 원주민은 제 자신에게, 자신이 속한 계층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언어에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한, 원주민과 이방인의 구별은 거의 불가능하다.”(Deleuze and Guattari 저, 이정임, 윤정임 역, 1995, 161).
 - 12) 배치 이론은 분류학적 본질주의를 피해 간다. 모든 스케일의 단계에서 배치의 정체성은 항상 과정의 산물이고 다른 과정들이 그것을 동요시킬 수 있으므로 항상 불안정하다. 이런 이유로, 조건 작건 간에 배치의 존재론적 상태는 항상 독특하고 단일한 개체들이다. 다시 말하면, 유(類), 종(種), 그리고 개체가 서로 다른 존재론적 범주인 분류학적 본질주의와 달리, 배치의 존재론은 평평한데(flat), 다양한 스케일의 개별적인 특

- 이성(혹은 특개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DeLanda 저, 김 영범 역, 2019, 54-55).
- 13) 어원적으로 보면, ‘다공적(porös)’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porós’에 기원을 두고 있다. ‘포로스’는 ‘통과(Durchgang)’, ‘열(Öffnung)’, ‘뚫고 들어가다(durchdringen)’, ‘이쪽으로 가지고 오다(herüberbringen)’ 그리고 ‘구멍을 뚫다(durchbohren)’ 등등의 의미를 갖는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구멍이 많아서 투과와 침투가 용이하다는 뜻이다. 구멍이 많아서 상호 침투가 용이하다는 것은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심혜련, 2022, 39).

참고문헌

- 권정화, 1995, “미로 속의 사회-공간 이론과 대중문화 연구의 유흥”, *공간과 사회*, 95-124.
- 권정화, 1997, 지역인식논리와 지역지리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혜련, 2022, “확장된 도시 읽기-벤야민의 도시 인상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14(1), 31-55.
- 이진경, 2002, 노마디즘2, 휴머니스트.
- Anderson, B., 2014a, Affect, in Cloke, P., and Crang, P., Goodwin, M., eds., *Introducing human geographies*, New York: Routledge.
- Anderson, B., 2014b, *Encountering affect: Capacities, apparatuses, conditions*, New York: Routledge.
- Anderson, B., Kearnes, M., McFarlane, C., and Swanton, D., 2012, On assemblages and geography,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2(2), 171-189.
- Anderson, B. and McFarlane, C., 2011, Assemblage and geography, *Area*, 43(2), 124-127.
- Anderson, J., 2012, Relational places: The surfed wave as assemblage and convergen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0(4), 570-587.
- Augé, M. 저, 이상길·이윤영 역, 2017, 비장소: 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아카넷(Augé, M., 1992, *Non-lieux: introduction à une anthropologie de la surmodernité*, Paris: Seuil).
- Barad, K.,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Bissell, D. 저, 박광형·전희진 역, 2019, 통근하는 삶: 통근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앨피(Bissell, D., 2018, *Transit life: how commuting is transforming our cities*, Cambridge, MA: The MIT Press).
- Buchmann, M., 2015, Emergent Properties, in James D. W.(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Nederland: Elsevier.
- Butler, J. 저, 김운상 역, 2003,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성’의 담론적 한계들에 대하여, 인간사랑(Butler, J., 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 Casey, E., 1996, How to Get from Space to Place in a Fairly Short Stretch of Time, in Feld, S., & Basso, K.(eds.), *Senses of Plac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Santa Fe.
- Chen, J., 2020, Sense of place, in Kobayashi, A.(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Amsterdam: Elsevier.
- Cresswell, T. 저, 심승희 역, 2012, 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시그마프레스(Cres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Malden, MA: Blackwell Pub).
- Cresswell, T., 2015, *Place: an introduction*, John Wiley & Sons, Hoboken.
- Cresswell, T., 2016, Place, in Agnew, J. A., & Duncan, J. S.(eds.),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hum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Hoboken.
- Davis, B. and Sumara, D., 2006, *Complexity and education: Inquiries into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New York: Routledge.
- DeLanda, M. 저, 김영범 역, 2019, 새로운 사회철학: 배치 이론과 사회적 복잡성, 그린비(DeLanda, M., 2006, *Ana philosophy of society: Assemblage theory and social complexity*, Continuum).
- Deleuze, G. 저, 김상환 역, 2004, 차이와 반복, 민음사(Deleuze, G., 1968,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Deleuze, G. 저, 서동욱·이충민 역, 2005, 프루스트와 기호들, 민음사(Deleuze, G., 1964, *Proust et les sign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Deleuze, G. 저, 서창현 역, 2005, 정동이란 무엇인가,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Deleuze, G., 1978~81, *Lecture transcripts on spinoza's concept of affect*, <https://www.webdeleuze.com/php/sommaire.html>).
- Deleuze, G. and Guattari, F. 저, 김재인 역, 2001,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2, 새물결(Deleuze, G. and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ritique"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Paris: Éditions de minuit).
- Deleuze, G. and Guattari, F. 저, 이정임·윤정임 역, 1995, 철학이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Deleuze, G. and Guattari, F., 1991, *Qu'est-ce que la philosophie*, Paris: Éditions de Minuit).

- Deleuze, G. and Parnet, C. 저, 히희정·전승화 역, 2005, 디알로그, 東文選.(Deleuze, G. and Parnet, C., 1977, *Dialogues*, Paris: Flammarion).
- Dewsbury, J. D., 2000, Performativity and the event: enacting a philosophy of differen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4), 473-496.
- Dewsbury, J. D., 2011, The Deleuze-Guattarian assemblage: plastic habits, *Area*, 43(2), 148-153.
- Dovey, K., 2009, *Becoming places: Urbanism/architecture/identity/power*, Routledge, New York, 13-30.
- Dovey, K., 2020, Place as assemblage. in Edensor, T., Kalandides, A., and Kothari, U.(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place*, Routledge, New York, 21-31.
- Doyle, A. M., 2019, Curriculum Becoming in the Assemblage of Lower Secondary Education in Ireland(Doctoral dissertation,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Maynooth (Ireland)).
- Duff, C., 2010, On the role of affect and practice in the production of pl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8(5), 881-895.
- Duffy, P. and Stojanovic, T., 2018, The potential for Assemblage thinking in population geography: Assembling population, space, and place, *Population, Space and Place*, 24(3), e2097.
- Fox, N. J. and Alldred, P., 2021, Doing new materialist data analysis: a Spinoza-Deleuzian ethological toolki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14.
- Gilloch, G. 저, 노명우 역, 2005,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 폴리스, 효형출판(Gilloch, G., 1996, *Myth and metropolis: Walter Benjamin and the city*, Cambridge: Pol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Blackwell Publishers).
- Kinkaid, E. and Nelson, L., 2020, On the Subject of Performativity: Judith Butler's influence in geography, in Datta, A., Hopkins, P., Johnston, L., Olson, E., & Silva, J. M.(eds.), *Routledge handbook of gender and feminist geographies*, New York: Routledge.
- Malkki, L., 1992, National geographic: The rooting of peoples and the territorialization of national identity among scholars and refugees, *Cultural anthropology*, 7(1), 24-44.
- Massey, D. 저,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역, 2016, 공간을 위하여, 심산(Massey, D., 2005, *For space*, London: SAGE).
- McCormack, D. P., 2009, Performativity, in Kitchin, R., & Thrift, N.(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Amsterdam: Elsevier.
- McFarlane, C., 2011, The city as assemblage: dwelling and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9(4), 649-671.
- Meyrowitz, J. 저, 김병선, 2018, 장소감의 상실: 전자 미디어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북스 (Meyrowitz, J., 1986, *No sense of place: The impact of electronic media on social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uminovic, M., 2015, Places as Assemblages: Paradigm Shift or Fashionable Nonsense?, *Athens Journal of Architecture*, 1(4), 295-310.
- Nail, T., 2017, What is an Assemblage?, *SubStance*, 46(1), 21-37.
- Nash, C. J. and Gorman-Murray, A., 2017, Sexualities, subjectivities and urban spaces: A case for assemblage thinking, *Gender, Place & Culture*, 24(11), 1521-1529.
- Nelson, L., 1999, Bodies (and spaces) do matter: the limits of performativity, *Gender, Place and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6(4), 331-353.
- Osberg, D., 2008, The Logic of Emergence: An Alternative Conceptual Space For Theorizing Critical Education, *Journal of the Canadian Association for Curriculum Studies*, 6(1), 133-161.
- Phillips, J., 2006, Agencement/Assemblage, *Theory, Culture & Society*, 23(2-3), 108-109.
- Page, P. T., 2020, *Placemaking: A new materialist theory of pedagog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Relph, E. 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Saldanha, A., 2017, *Space after Deleuze*, Bloomsbury Academic, London.
- Semetsky, I., 2011, Becoming-other: Developing the ethics of integration, *Policy Futures in Education*, 9(1), 138-144.
- Sennett, R. 저, 김병화 역, 2020, 짓기와 거주하기: 도시를 위한 윤리, 김영사(Sennett, R. 저, 2018, *Building and dwelling: Ethics for the cit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Simpson, P., 2020, *Non-representational theory*, New York: Routledge.
- Slaby, J. and Mühlhoff, R., 2019, Affect in Slaby, J., Scheve, C.(eds.), *Affective Societies: Key Concepts*, New York: Routledge.
- Smitheram, J., 2011, Spatial performativity/spatial performance, *Architectural Theory Review*, 16(1), 55-69.

- Strathern, M. 저, 차은정 역, 2019, 부분적인 연결들: 문명 너머의 사고를 찾아서, 오월의 봄(Strathern, M. 저, 2005, *Partial connections*, California: AltaMira Pres).
- Thomas, M. E., 2005, 'I think it's just natural': the spatiality of racial segregation at a US high school, *Environment and Planning A* 37(7), 1233-1248.
- Thrift, N., 2004, Intensities of feeling: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86(1), 57-78.
- Tuan, Y. F. 저, 구동화·심승희 역, 1995, 공간과 장소, 대운 (Tuan, Y. 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oods, M., Fois, F., Heley, J., Jones, L., Onyiahialam, A., Saville, S., and Welsh, M., 2021, Assemblage, place and globalisati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46(2), 284-298.
- 접 수 일 : 2023. 10. 14
수 정 일 : 2023. 11. 27
게재확정일 : 2023. 11. 27
- 교신: 박명화, 27395, 충북 충주시 염밭로 101, 충주성남초등학교 교사(saint0182@hanmail.net, 043-848-0043)
Correspondence: Myung Hwa Park, saint0182@hanmail.net